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안갯속 판세가 전개되고 있다. 최대 하이라이트로 주목받는 당 대표 경선은 이정현(왼쪽부터 기호순)·이주영·주호영·한선교 후보의 4파전으로 치러진다. 8일 이정현·한선교 후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주영 후보는 서울시당 위원장을 찾았다. 주호영 후보는 대구지역 의원들 모임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정현, 한국 정치사 새 이정표 세우나

오늘 새누리 전대...호남 출신 당대표 탄생 관심

친박계 적극 지지...각종 여론조사 근소한 차 우세

TK 표심이 변수...비박 단일후보 주호영 상승세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인 가운데 당권 도전에 나서는 이정현 후보의 당선 여부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보수 여당 최초의 호남 출신 당 대표가 되는 것은 물론 영남 기반의 보수 정당에서 지역주의 벽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치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의 불모지인 전남 순천에서 잇달아 당선된 이 의원이 보수 여당의 당권을 거머쥐게 된다면 지역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 정치권의 근본적인 변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일단, 전체적인 판세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면 친박(친박근혜)계에 호남 출신 이정현 후보가 다소 앞선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영남 및 보수 당원들이 이 의원의 당권 도전을 수용할 것인지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범친박계로 분류되면서 계파 중립을 선언한 부산·경남(PK) 출신 이주영 후보도 전대를 일찌감치 준비한 덕에 조직 동원력이 만만치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전대에 가장 늦게 뛰어든었지만 비박(비박근혜)계의 단일 후보로 나선 대구·경북(TK) 출신 주호영 후보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 출신에 대중적 인지도가 강점인 한선교 후보 역시 '다크호스'로 꼽힌다.

승부는 사실상 전날 치러진 전국 선거인단 투표에서 갈린 상태다. 6만9817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9일 전당대회 현장의 대의원 투표는 약 9100명이다.

일단 새누리당 핵심 지지기반인 TK에서 1만9326명이 투표에 참여, 전체 투표 선거인단의 27.7%를 차지한 게 눈길을 끈다. TK 표심은 이 지역 출신인 주호영 후보에게 기울지 않았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친박 성향이 짙은 지역의 특성상 이정현 후보도 상당한 지지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1만6589명(23.8%)이 투표한 PK에선 이 지역 출신 이주영 후보가 우세했다는 관측과, 김무성 전 대표의 지지를 얻은 주호영 후보도 선전했다는 관측이 교차하고 있다.

최대 관건은 영남권에 이어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2만1037표, 30.1%) 표심의 향배로 특정 주자에 표심이 몰리기 보다는 분산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막판에 불거진 '오더 투

표' 논란은 잠실체육관 현장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영·한선교 후보 측은 여러 정황을 들어 친박계는 이정현 후보로, 비박계는 주호영 후보로 오더 투표가 이뤄졌다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서청원·최경환 등 친박계 핵심 의원들이 이정현 후보를, 김무성 전 대표 등 비박계가 주호영 후보를 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표 경선에 건진 주목도는 떨어지지만 5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도 10명의 후보가 막판까지 전력투구하면서 2대 1의 경쟁률 속에 치러진다. 비박계 강석호 후보가 앞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친박계 조원진·이장우·한진규 후보와 중립 성향의 정용기 후보, 비박계 정문헌 후보가 각축 중이다.

여섯 명의 최고위원은 비박계의 이은재, 친박계의 최은혜 후보가 각축을 벌이는 양상이며 청년 최고위원은 유창수 후보와 이부형 후보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민주 초선 6명 방중 시작부터 빠져

김장수 주중 대사 면담 불발...당내 균열도 심화

중국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이 8일 중국을 방문했다.

더민주 의원 방문단에는 당 사드 대책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을 비롯해 신동근, 소병훈, 김병욱, 손혜원, 박정 의원이 참여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이들 의원들은 이날부터 사흘간 체류하면서 베이징대 교수들과의 좌담회, 교민간담회, 한국언론 특파원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중국 공산당 혁명건설촉진회 리홍린 부장이 주최하는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 도착 직후 만나기로 했었던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면담이 불발되는 등 방중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 당 소속 초선의원 6명의 '사드 방중'으로 여당·청와대와 치열한 전선(戰線)을 형성하고, 외교적 시험대에도 올랐다. 사드 당론 채택 문

제로 인한 당내 혼선도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으로까지 번질 조짐이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장, 밖으로는 초선 방중단이 '무사히'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고, 안으로는 여권의 공세를 막는 동시에 이견이 난무하는 당 내부를 추슬러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더민주 주로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 등 선점한 이슈들을 날려버렸다는 평가다. 사드 논란이 우 수석 문제는 물론 검찰 개혁과 세월호 특위 연장 등 더민주의 선공(先攻)으로 의제화된 모든 이슈를 뺏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8·27 전대를 앞둔 시점에서 당 대표 후보들이 내놓은 사드 입장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한 편갈림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상곤·추미애 후보는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비주류인 이종걸 후보는 찬반에 앞서 국회비준동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호남선 타고 지지율 반등 모색

박지원 목표 방문 이어 당지도부 1박2일 전복행

국민의당이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을 잇달아 방문하며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지지율 끌어 올리기엔 나사고 있다.

8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전주를 중심으로 전북 지역을 방문한다. 첫날에는 전주 남부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다음 날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간담회에 이어 비대위 회의를 갖는다.

이어 농어업 축산인단,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등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 민심을 두루 살필 예정이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

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전날 목표에서 열린 DJ 서거 7주기 기념 행사에서 DJ의 직통을 강조하는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손전 고문을 향해 은근한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이는 최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진 지지율 하락세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다.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두 번 각각되면서 위기를 넘어서고 사드 등 현안 문제에 대해 선명 야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지율 반등의 동력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좀처럼 반전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3파전 혼전 더민주 당대표 경선 송영길 지지표 향배 변수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선으로 접어들면서 예비경선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해 탈락한 송영길 후보의 표가 어디로 향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 후보는 본선 경쟁력을 기준으로 당 안팎에서 '2강'을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송심(宋心)이 캐스팅 보트가 되리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판세가 어느 한 후보의 우세를 점칠 수 없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송 후보 지지 표심 확보는 상당한 변수로 꼽히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송 후보의 지지층이 '연합군' 형태를 띠고 있었던 만큼 표가 한쪽으로 몰리기보다는 세 후보에게 흩어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송 후보의 표는 86 그룹을 기반으로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비주류 진영과 일부 친문 진영의 표도 섞여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가운데 범주류의 표는

김 후보와 추 후보에게, 호남과 비주류의 표는 김 후보와 이 후보에게 분산돼 흡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친문 및 중도 성향의 호남 일부 표심은 추 후보에게 몰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송영길 의원은 전대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송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광주의 한 사찰에서 좀 쉬면서 묵상하고 반성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후보들의 신경전이 점차 과열되는 양상이다. 김 후보는 최근 일부 언론이 예비경선 결과 김 후보가 1위였다는 보도를 하자 이를 SNS에 게시하며 "평당원의 혁명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선관위가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野 공수처 신설 법안 공동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병계 의원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 장인용수 의원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공수처 설치안은 전직 대통령의 4촌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국회의원 10분의 1 이상 요청으로 수사가 개시되며 처장은 범조

계 인사로 하는 등 구체적 내용은 지난 2일 양당이 발표한 협의사항과 대부분 같다.

다만, 두 당의 이견이 있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도 수사대상에 포함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더민주는 반대했지만, 철저한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김영란법 위반도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의당의 주장이 결국 채택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 상 자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4.7% ~ 4.9%
대출기간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